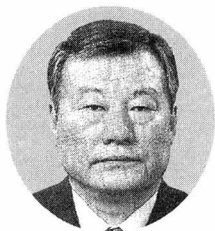


우리 토종들꽃 자랑과 保存위해 몸바친 30년



김 정 명

(올해 환경인賞 받은 사진작가,
녹색문화예술인)

30년 가까이 우리나라 토종들꽃을 촬영, 많은 작품을 보존해온 사진작가이며 본회 회원인 金正明(53·시청각교재 宣嘆대표, 서울 종로구 가든타워 1203호) 씨가 지난 12월 14일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이 제정한 제9회 올해의 환경인상(綠色文化藝術人)을 받았다. 金씨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토종들꽃이 무관심한 사이에 다른 나라로 넘어

갔다 개량되어 다른 이름이 되어 돌아온다」고 푸념.

토종들꽃 사진 촬영과 작품 창작 동기가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믿었기 때문.

그에 의하면 양질의 향기를 뿜는 「라일락」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이며, 옛 우리 이름은 “수수꽃다리”이고 현재 식물명은 털개나무란다. 이 꽃씨가 어느새 미국으로 넘어가 개량되

어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는데 이름이 「라일락」이라 바뀌었고 꽃 이름 끝에 「Miss Kim」을 붙여 원생지가 한국이란 것을 암시적으로 표시한 것을 보면 일말의 양심은 있는 듯하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직후인 1920년 경 「하나부사」란 주한 일본공사는 무서운 일본헌병 1개 중대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의 산야를 뒤졌으며 지금도 외국에선 생물척보원이 활약하는 것으로 안다고 경각심을 높이게 했다. 86년 대한민국 문화영화제 금관상심사에서 우수작품상과 촬영상을 받았고 매년 새 내용으로 펴내는 「한국의 야생화」 사진집으로 96년 한국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올해의 좋은 영상물” 대상도 받았다.

2000년 새해의 금씨 소망은 완전한 「식물도감」의 출판 착수이다. 싸에서부터 열매에 이르는 과정을 6단계로 해서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 하니 함부로 누구나 욕심낼 수 없는 대담한 기획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김씨와 함께 이날 환경문제 해결에 헌신한 인사

에게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

기타 綠色賞 수상자

- ▲ 녹색시민상 : 영월댐 백지화를 위한 영월—정선—평창 3개군 투쟁위원회
- ▲ 녹색언론인상 : 오동선 평화방송라디오국 PD
- ▲ 녹색정치인상 : 김영한 국회의원
- ▲ 녹색공무원상 : 이석형 함평군수, 백종호 산림청 임업서기관
- ▲ 특별상 : 여수시의외 산하 여천국가산단 환경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포항제철서초등학교, 이재욱 노키아티엠씨 회장 〈珠〉

